

■ 2018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2차 공모 2차 지원심의 총평(소설 및 수필)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8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2차 공모 2차 지원심의 (소설 및 수필)
- 회의일시 : 2018. 9. 12(수) 14:00 ~ 16:3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2층 위원회의실

소설 11편, 수필 2편을 가려내는 데 커다란 이견은 없었다. 특히 소설은 흥미로운 작품들이 많았다. 비슷한 장르나 소재가 거의 없었고 모든 작품들이 자기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소설 부문에서 아쉬운 점은 소재의 참신함에 비해 형식이나 문장, 구성에서는 참신함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기발한 상상력이나 뛰어난 소재 발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쳐주는 형식과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창작의 과정에서 더더욱 고려 되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소설 부문에서는 다채로운 소재와 주제에 비해 디테일의 섬세함이 부족한 측면이 아쉬웠다. 수필은 전반적으로 소설에 비해 다양성이 부족했다. 요즘 출판계에서는 흥미로운 에세이집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응모작 중에서는 신변잡기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라 수필 부문이 소설 부문에 비해 시대적 흐름을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느껴졌다. 수필에서도 더욱 급진적이고 전위적인 실험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 소박하게 자기주변의 이야기를 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현실, 전위적인 실험, 창조적인 문체가 돋보이는 수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새롭고 참신하고 실험적인 내용과 형식을 담을 수 있는 무한히 자유로운 장르가 바로 수필이기에 더 좋은 수필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개성 넘치는 작품들이 가득했던 소설 분야에서는 특히 사회의 부조리 때문에 고통 받는 개개인이 감내하고 있는 내면의 고투를 그린 작품들이 많았다. 수필은 신변잡기적인 내용이 많은 대신에 매우 순수하고 소박한 자기발견의 아름다움을 담은 글들의 느낌이 좋았다. 기존의 응모작들보다는 소설의 스토리가 좀 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난해하거나 복잡한 스토리 전개는 별로 없었고, 다양한 문체와 실험이 돋보이는 소설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소설을 쓴다는 것 자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긍심을 지니고 있는 작가들이 아직도 많다는 사실에 커다란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 서사와 관련 없고 주제와도 관련 없는 서술들을 과감히 덜어내고, 스토리 전개와 인물의 창조 자체에 더욱 강렬한 에너지를 부여하는 실험적 글쓰기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작가님들 모두에게 진심어린 축하와 따스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심의위원 일동